



주후 2023.9.24



교회와 세상의 통로
복음의 길목

유튜브&카카오채널



주 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37 노블리제빌딩
406호 더블어섬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이메일

gilmokchurch@gmail.com

사역자

담임목사 : 이길주
교육목사 : 권세진
전도사 : 전정민
전도사 : 황예찬
음악사역 : 이건명

찬양팀

찬양인도 : 전정민
가야금 : 김고은
해금 : 이건명
베이스 : 장 천
피아노 : 정지혜
기타 : 황예찬

즐거운 교회 공동체

예배는 정치와 비판의 날 선 율법주의로 물든 시간이 아닌 위로받고 나누며 사명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열린 주일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설교자가 아닌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하는 예배 시간

[다함께 커피토크] 매 주일 오후 1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행복한 시간

사회 속의 그리스도인

사회와 동떨어져 우리끼리만 살아가지 않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열린독서모임]

신앙, 사회, 역사, 문화 책 / 함께 읽고 나누며 풍성해지는 시간

뱃 속 깊이 그리스도인

세상 철학과 자신의 감각보다 더 우선하는 건 성경, 익숙히 알고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갑니다.

[성경공부 및 주중 세미나] 주일 오후 2시 및 주중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은혜받는 시간

성령과 은사를 귀중히

성령의 시대, 성령 안에서 연합하고 행동합니다.
주신 재능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더불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와 은사 사역 모임] 목요일 오전 10시30분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바쁜 현대인의 삶으로

건물 안에서만 고백하고 활동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치열한 성도들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합니다.

[카페 데이트&신앙,성경 QnA 커피토크]

신앙, 성경에 대해 궁금한건 언제든지 편하게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주일에배

오전10:30 커피타임으로 시작

고백과 참회

예배로 부름..... 인도자

입례송.....〈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같이

F A Dm F/C Bb Gm7 Csus
 왕 이 신 나 의 하 나 님 - 내 가 - 주 를 높 이 고 -
 C7 F A Dm F7/C Bb C7 F Bb/F F
 - 영 원 히 주 의 이 름 을 - 송 축 하 리 이 다

성시 교독.....〈마태복음 5장〉..... 다같이

- (인도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도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인도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도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인도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도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인도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성도들)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인도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도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인도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인도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도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인도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성도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인도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다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참회 기도.....〈나,이웃,교회,나라,세상〉..... 다같이

사죄의 확신 다같이

(인도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성도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찬송과 감사

찬양 찬양팀과 함께

감사의 고백 다같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 3가지 이상을 생각하고 고백합니다

말씀과 나눔

말씀 교독 <왕하 5:1-19> 다같이

말씀 듣기와 묵상 다같이

말씀 권면 이길주 목사

묵상 기도 다같이

응답의 찬양 다같이

♩ = 72

p F C Dm B $\flat$ D G C F C Dm Gm C³ F

사랑의나눔있는곳에하나님께서제시도-다
2번 함께 부릅니다

말씀 기도 다같이

응답과 축복

✚ 감사 찬양 <감 사> 다같이

✚ 결단과 축복 다같이

(인도자)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성도들) 주의 자녀 된 나와 가족, 그리고 우리의 사업터 위에 복이 있을지어다.

(다같이) 주를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1-3 나아만은 아람 왕의 군사령관으로, 그의 주인에게 중요한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아람에게 승리를 주셨으므로, 왕은 그를 더할 나위 없이 귀히 여겼다. 그는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다만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다. 전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원정 기습할 때 한 어린 소녀를 붙잡아 왔는데,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종이 되었다. 하루는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했다. “주인께서 사마리아의 예언자를 만나시면, 피부병을 고치실 수 있을 텐데요.” 4 나아만은 곧바로 자기 주인에게 가서 이스라엘 소녀가 한 말을 보고했다. 5 아람 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가시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소개 편지를 보내리다.” 그래서 그는 은 340킬로그램, 금 68킬로그램, 옷 열 벌을 가지고 떠났다. 6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전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왕께서 이 편지를 받으면 아시겠지만, 내가 개인적인 일로 신하 나아만을 왕께 보냈습니다. 그의 피부병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7 이스라엘 왕은 편지를 읽고 근심에 사로잡혀 옷을 잡아 찢었다. 그가 말했다. “나에게 이 사람의 병을 고쳐 주라니, 내가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능력이 있는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것은 아람 왕이 시비를 걸려는 수작이다!” 8 이스라엘 왕이 너무 괴로워서 옷을 잡아 찢었다는 말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들었다. 그는 왕에게 전갈을 보냈다. “어찌하여 옷을 찢을 정도로 근심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을 내게 보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9 그리하여 나아만은 거창하게 자기 소유의 말과 전차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다. 10 엘리사가 종을 보내 그를 맞이하면서 메시지를 전했다. “요단 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담그십시오. 그러면 살갗이 나아서 새 살처럼 될 것입니다.” 11-12 나아만은 화가 치밀어 발길을 돌리며 말했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손을 얹어 병을 없앨 줄 알았다. 다마스쿠스의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의 강보다 훨씬 깨끗한데, 거기서 목욕하면 안된단 말인가? 그러면 몸이라도 깨끗해질 것 아닌가!” 그는 노발대발하며 떠나가 버렸다. 그러나 그의 부하들이 따라와서 말했다. “장군님, 예언자가 어렵고 거창한 일을 주문했어도 그대로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저 씻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 간단한 일을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14 그래서 그는 거룩한 사람의 명령대로 요단 강에 내려가서 일곱 번 몸을 담갔다. 그러자 그의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졌다. 15 나아만은 수행원을 데리고 거룩한 사람에게 돌아가 그 앞에 서서 말했다. “나는 이제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외에는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여 선물을 드리하고자 합니다.” 16 엘리사가 대답했다.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당신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나아만은 선물로 무엇이든 주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받지 않았다. 17-18 나아만이 말했다.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겠다면, 내가 당신에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내게 나귀 한 페에 실을 수 있을 만큼의 흙을 주십시오. 이제 내가 다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일만큼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모시는 주인이 내 팔에 기대어서 림몬 산당에 들어가 예배하면 나도 그분과 함께 거기서 림몬을 예배해야 할 텐데, 그 일만큼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9-21 엘리사가 말했다. “다 잘될 것이니 평안히 가십시오.”



1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니 나병환자더라 2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3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4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라 하니 5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십 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가서 6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7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나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줄 알라 하니라 8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9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10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 하리라 하는지라 11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짖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12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13 그의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 이리이까 하니 14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15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16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17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18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19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말씀묵상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감사찬양

감사

D A/C# Bm F#m/A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G F#m Bm Em /G# A

내 뜻 대로 안 되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 감사

D A/C# Bm F#m/A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주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G F#m Bm Em G/A D G/A A7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하신 것 모든 것 -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D A/C# Bm F#m/A G D/F#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

Emn E7/G# A7 D A/C# Bm F#m/A

은혜 입 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G D/F# Em A7 D

사랑하신 주 사랑 - 감사 합 니 다

G A Bm7 G A D G A Bm7 F#m7 G A D G/A

항상



중보기도

중보해야 할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넣고
기도해보세요



교회안내

하나님나라를 위한 길목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12:20 (10:30 커피타임시작)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12:20
필립하우스 기도모임	목요일 오전 10:30~12:30
주일오후 프로그램	주일 오후 1:30~3:30

사역자

담임목사	이길주	교육목사	권세진
전도사	전정민	음악사역	이건명
전도사	황예찬		

찬양팀

찬양인도	전정민	가야금	김고은
해금	이건명	베이스	장 천
피아노	정지혜	기타	황예찬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홈페이지] <http://theway.new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gilmokchurch>

[사역 헌금 계좌] 신한은행 140-013-701830 대한예수교장로회 길목교회





길목교회의 추구가치

길목교회의 방향성

길목교회는 사회 가운데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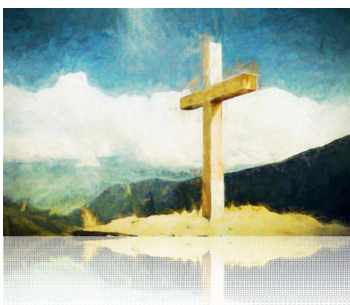
길목교회는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통로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을 거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는 선교사입니다. 세상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예배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이 시대의 진리의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며, 후손들에게도 계승하여 이 땅에 쓰신 주의 말씀이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역사하도록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일상 속에서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건물에 모여서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그때의 예배만 예배로 드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공동체이고, 내 삶의 현장을 선교지로 인식하고 주님의 제자로 선교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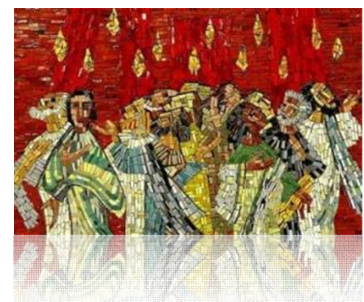
길목교회는 하나님이 주인공인 공동체입니다



길목교회는 예배와 기도, 교제와 교육,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동체입니다. 목회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설교가 예배의 핵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이고, 제자이고, 쓰임 받는 도구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도구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 교회는 마땅히 성령님과 함께 성령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고, 우리로 하여금 동일하게 교회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목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간구하고,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길목교회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음성을 사모하며 간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소식

주님 나라를 위한 행복한 공동체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길목교회는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서 복음이 유통되는 길목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는 기쁘게, 신앙은 열정적으로,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이기를 바라며, 건물교회에서만이 아닌 우리의 삶속에서 참된 교회의 삶이 펼쳐지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직회

오늘 예배 후에 제직회가 있습니다.

안건: 권세진 교육목사 연임에 관한 건

새가족 환영회 - 10월15일

10월 15일에는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10월부터 점심식사 운영 변경

10월부터 점심식사시간 운영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1주 - 도시락 / 2주 - 라면 / 3주 - 밀키트 / 4주 - 성도참여 / 5주 - 랜덤

* 2주+3주 식사는 가스버너로 함께 요리해 먹습니다.

* 4주 식사는 성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기념할 일이나 섬기실 마음이 있으실 경우 한주 전에 미리 알려주세요.^^

<10월4주 - 정지혜 집사>

추석 주일 (10.1) 모임 안내

9월28일부터 추석명절이 시작됩니다. 다음주 10월1일 주일은 주일 오전예배만 있고 점심식사와 오후 순서가 없습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